

민주 ‘법사위원장 양보 철회 논란’ 다음주 의총 소집

의총서 재검토 요구 분출
지도부 리더십 타격 불가피
대선 경선판으로 확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는 논란과 관련, 다음 주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합의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들의 의총 개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의총에서 재검토 요구가 분출할 경우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의총이 법사위 문제를 둘러싼 내용의 향배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미 저번 주 임시국회 대비 및 법사위 관련 의총 소집 요구가 있어 빠른 시간 내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는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들의 여름 휴가가 집중된 상태여서 다음 주 중으로 의총 일정을 확정한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다. 이에 의총 개최를 요구하며 ‘집단행동’ 태세를 보였던 강경파 정청래 의원은 SNS에 “의총 소집 요구가 관철된 이상 연서명은 중지하겠다”며 “소집 요구에 응답

한 원내지도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당내 대권 주자들까지도 법사위 양보 논란에 참전한 상황인 만큼 내주 의총 논의가 대선 경선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대선주자 6명 가운데 당 지도부에 재고를 공개 요청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 등 2인이 ‘법사위 양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는 강경파의 의견 수렴과 설득에 의총의 방향을 짚으며 합의의 반복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 문제로

원래 열기로 했던 의총”이라며 “법사위 합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법사위 개선이 전제된 합의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8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여야 원내대표 간 법사위 합의서는 자연히 휴지통으로 간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법사위 개혁법안 통과를 전제로 법사위원장 양보가 합의됐다. 그게 안 되면 법사위 양보는 자동 무산”이라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의총 개최 여부를 두고 지도부 내부의 ‘엇박

자’도 노출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의총을 열어 법사위 합의 관련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고 수석대변인의 반박이 나온 지 약 1시간 50분 만에 원내 지도부가 의총 개최 결정을 의원들에게 공지해 당과 원내 지도부 간 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의총(개최) 결정을 했다”며 “매칠 전에 결정됐다. 지도부 결정이 포함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風’ 기습 상륙에 빨라진 국민의힘 대권시계

최재형·홍준표·유승민 등
파괴력 촉각 속 존재감 키우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대권시계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기존 주자들은 “우리 갈 길 간다”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윤풍’ (윤석열 바람)의 기습 상륙이 가져올 파괴력에 촉각을 세우며 존재감 키우기에 더 적극 나설 태세다. 윤풍은 여론조사에서부터 감지됐다. PNR리서치가 입당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5.5%를 기록, 여야 전체 1위 자리를 차지했다. 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6주 연속 하락세를 꺾고 반등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내부에선 최소한의 ‘이름값’을 한다는 안도감이 새어 나왔다. 최근 며칠간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주자·정당 지지율의 동반 상승 흐름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주자로서 정당성과 경쟁력을 확인받은 셈”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름 휴가철 등 이유로 흐름을 고르고 있던 다른 주자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예비군 장성들과 간담회를 했다. 캠프 오픈하우스 이후 갖는 첫 외부인 초청 행사에서 안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제를 택한 것은 보수진영 주자로서의 대표성과 ‘군 가쪽’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부각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여겨진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일제히 영남으로 향했다. 홍 의원은 오는 7일까지 지역구가 있는 대구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뒤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유 전 의원은 오는 8~10일 부산·울산·경남을 돌며 지역 청년들과 스킨십에 나선다. 대학생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저격수’로 자세를 고쳐잡는 태세다. 전남 지사직을 사퇴하며 정치인으로서 기본 양심과 공직 윤리를 강조했던 그는 이날 SNS에서 “도지사와 선거운동이 양립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라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힘겨루기 장외 공방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일 합당 힘겨루기 속에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플러스 통합’이 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면서 마지노선”이라며 “양당 통합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준 지상과제로,

이것을 거스르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밖 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을 기념하며 회의실 백드롭에 있는 배터리 그림의 빈칸을 모두 채워 넣었다. 당 경선 버스에 모든 주자가 탑승함으로써 배터리가 완충됐다는 의미로, 당 밖에 여전히 남아 있는 안 대표에게 합당을 통한 경선 참여

를 압박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안 대표는 연일 이어지는 국민의힘의 합당 압박에 ‘야권 위기론’을 꺼내 들며 맞섰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 1인 시위를 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야권보다 높다”며 “야권은 위기 상황이고,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1야당과 제2야당의 지지자 주변을 넓힐 수 있는 플러스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 일각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

설훈 “남북·북미관계 개선 위해”
송영길대표 “예정대로 진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영재 노동당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훈련 가능성에 공개 반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를 뒤로 미루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8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남북이 1년여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채널을 재가동했다”며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코로나 방역은 물론,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김

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염려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번 훈련은 기동훈련이 없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완전한 운용능력(FOC) 검증에 있어 필수적 훈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우려에 대한 달래기에 나서면서 당 일각의 연기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이러한 반응은 김 부부장의 담화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與 “매출 10~20% 감소 위기업종 최대 100만원 지원” “관계부처,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방안 금주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 “매출 10~20% 감소 구간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소상공인 어려움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은 “개인·법인·택시 기사간 지원금액에 실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재난

지원금 중복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관련 부처가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경영위기업종에 10~20% 매출 하락 구간을 신선했고,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위한 민생지원자금 80만원 지원 등 방안을 추가해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